

[보도자료] “쿠팡 입점 2년만에 3배로 성장” 4주년 맞은 쿠팡 ‘경북세일페스타’, 성공사례 줄이어

2023. 3. 3.



- 상주 지역 꽃감 업체, 쿠팡 입점 2년 만에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뛰어 넘어
- 쿠팡,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판매 지원
- 2023년 경북세일페스타, 경북 소재 294개 기업 참여, 3,942개 상품 최대 10% 할인

2023. 03. 03. 서울 - 쿠팡 ‘경북세일페스타’가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쿠팡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파급효과를 내는 성공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 있는 꽃감 생산 업체 감칠맛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하 감칠맛)는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다 2021년 처음 쿠팡 경북세일페스타를 통해 온라인에 진출했다. 이찬우 감칠맛 대표는 “쿠팡 로켓프레시에 입점하며 코로나19 및 대형마트 업계 위축으로 감소했던 매출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2021년부터 꾸준히 ‘경북세일페스타’에 참여한 덕에 2022년 매출이 전년대비 325% 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는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 금액이 오프라인 판매 금액을 넘어섰다”며 “쿠팡 덕분에 지역 꽃감용 감 농가도 활성화되고, 직원 규모도 꾸준히 늘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국 최대의 꽃감용 감 주산지인 상주에선 지난해 가을 사상 최대의 감 풍년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다. 공급량이 크게 늘어 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일부 수확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꽃감용 감을 매입해 꽃감을 만드는 감칠맛의 성장은 곧 꽃감용 감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성장이었다.

한 상주 감 재배 농민은 “쿠팡에 직접 진출한 중소기업인들의 성장은 그들이 새로 고용하는 인력이나, 그 업체들이 매입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우리 같은 농민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세일페스타는 쿠팡이 경북도청 및 경북경제진흥원과 손잡고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를 지원하는 상생기획전이다. 쿠팡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경북세일페스타’를 열고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이 쿠팡앱과 웹사이트에서 더 잘 노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마케팅, 광고 활동을 지원해 왔다.

쿠팡은 올해도 ‘경북세일페스타’를 열고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지원에 적극 나선다. 오는 12월 말까지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2023 경북세일페스타’에는 경북 소재의 294개 기업이 참여해 찰보리쌀, 사과, 반건조 오징어 등 농수산물은 물론 이불, 홈웨어 등 섬유패션까지 3,942개 상품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경북 세일 페스타’는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수한 상품을 쿠팡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역 상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프로모션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물류 등 온라인 판매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지역 상생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으며, 특히 경북 지역은 가장 높은 수치인 91%를 기록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